



보도시점 2024. 12. 30.(월) 석간 누리망·방송 2023. 12. 30.(월) 06:00

경찰,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적극 지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차장 이호영)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타종, 해맞이 등 다양한 행사(전국 296개소, 지자체 추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경찰관 11,300여 명(79개 기동대 포함)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 보강 등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별 부단체장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파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행사장 진출입로 인파 밀집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우회 조치 및 진입 통제 예정이다.

※ 붙임. 주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장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중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종로 1가 사거리에서 타종식과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시 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500여 명(17개 기동대 포함)을 동원하여 12. 31. 18:00부터 종로대로 등 행사 구간 교통 통제하고, 관람 구역을 나누어 비상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울산은 간절곶 일대 해맞이 행사에 지자체 추산 13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은 경력 180여 명(2개 기동대 포함)을 배치하고 지자체에서는 해변 갑판·절벽·교량 등 위험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강원은 일출 명소인 강릉 경포 해변·정동진 일대에 지자체 추산 10만여 명이 운집 예상되나 넓은 해변으로 인파 밀집보다는 방파제 등 취약지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 120여 명(1개 기동대 포함) 배치하고, 주변 도로에는 교통 경찰관을 배치하여 이중주차 방지 등 소통 위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민들께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질서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비국 대테러위기관리과	책임자	총경	김진형 (02-3150-2088)
		담당자	경정	이태훈 (02-3150-2961)





경찰헬기



신형 방송조명차(DJ폴리스)



LED전광판 차량



키다리(안전지킴) 경찰



현장지휘차